

풍부하게 줄 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외치거라

*작성일 : 2010년 9월 27일

*작성자 : 주성화 (부산 대연주영광교회)

「2010년 9월 7일 새벽3시30분~

보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진정 이 시대 귀한 보화를

발견케 해주심에 감사기도 하였습니다.

하지만 자신감을 잃고 있었을 때

주님“제가 얻은 보화가 무엇입니까”라고 물으니

주님께서“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주었고 내가 나의 귀한

말씀, 계시를 준 것. 이것이야말로 큰 보화가 아니냐”

말씀하시자 그때 저는 그 가치성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음을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

주님께‘진정 주님과 선생님이라는 보화를 얻었으니 더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과 선생님을 얻었으니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때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」

* 예수님 말씀 *

성화야 내 사랑아

얻었느냐 깨달았느냐 가졌느냐

진정 나 예수와 선생을 가진 자로구나

진정 얻은 자로구나

얼마나 귀하고도 귀한 것이냐

그 무엇에 비하랴

그 무엇과 진정 바꿀 수 없는

천하의 가장 귀한 진보석보다

귀한 것 얻은 자로구나

얼마나 많은 섭리의 내 사랑하는 자들이

이 귀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까

얼마나 깊이깊이 깨달을까

진정 원하는 것 값진 것 얻을 수 있는

이 시대 문을 열었노라

지금은 활짝 열렸노라

깨달은 자는 진정 가져갈 것이다

깨닫고 그것을 향해

깊이 파고 간구하고 두드린 자는

더더욱 깊은 것을 얻을 것이니라

도전의 문 기회의 문이 각자에게 다 열렸으니

각자 깨달은 대로 가져갈지어다

내 너희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.

얼마나 이곳이 귀하냐

나 예수와 선생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며 보화냐

진정 깨달느냐

나의 흔적 나의 오리지널 흔적

선생의 발길 몸길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것이

진정 귀한 보물인 것을

섭리는 진정 깨달을지니라

섭리라는 값진 진주를 이곳에서 캐낼 수 있도록

나는 이곳을 택하였노라

다른 사람은 구하고 얻고 노력하고 수고의 몸부림을 쳐야

겨우 얻을까 말까한데

이곳 섭리는 들어오는 그 자체가 조건이 되어

선생의 몸부림의 조건으로 인해

섭리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바로

천국을 차지하고 값진 **진주**를 캐내는 인생이 되었구나

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

절대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어

이 귀한 섭리 보물인 선생 통한 말씀 통해서

귀하고 값진 보석과 진주를

각 개성대로 가져갈지어다

섭리 속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생의 향기를 찾아내어

너희가 가장 먼저 그 향기가 되어

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거라

이곳만이 진정 진정

너희가 가장 귀한 것 얻은 곳임을

잊어서는 안 된다

영적 전쟁 육적 전쟁, 결국은

나 예수와 선생을 잃을 때

일어나는 것이다

가장 근본인 나 예수의 역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

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내어 뜻을 이루는 것이다

너희, 진정 보화를 찾아낸 자는

절대 주저하면 안 된다

완전 자신의 것이 된 자는 외치거라

두려울 것 없지 않냐

자신의 것이 되었다면 무엇이 두려우냐.

과감히 담대히 외쳐

시대의 표적인 나 예수의 역사함을

과감히 증거하는 것이야
이제 바로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
지금 이때 지금 기회의 때
하늘 문이 아직 안 닫혔을 때가 기회니
이 기회를 잡아라

수많은 자신들의 한계 속에
진정으로 무엇이든 두려워 말고
내가 얻은 것을 과감히 외치고 외치는 것이야
농부가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
나머지 쪽정이는 버리지 않으나
다 거둔 것으로 겨울철 그 어려운 기간을
풍부하게 보내지 않느냐
지금은 충만히 주고 있으니
지금 이때 때 놓치지 말고
과감히 외치는 것이야
지금 준비된 자 예비된 자
나 예수가 택한 백성들 모으고
또 모으자
너희가 거둬들일 생명들이 결국 너를 살린다
명심이다

절대 때를 알고 분별하여 때를 놓치지 말자
지금은 나 예수가 풍부하게 줄 때다
구하는 만큼 자기 것을 다 판만큼 다 얻을 때이니
나 예수가 풍부하게 줄 때 가져가는 거야
겨울이 되면 곡식을 거둘 수도
가져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
내가 왜 애가 타도록 돌아다니며 지금의 때에
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
구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

재림의 때라 하니 마지막 때라 하니
두려워만 하고 지레 겁먹고
자신감 잃은 자 보았도다
두려운 것이 아니다
나 예수가 시킨 것만, 나 예수가 원하는 것만
믿고 행하며 따라오면
나 예수가 내 사랑하는 자들 절대 버리지 않으니
나의 손잡고 하면 되는 거야
부지런히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
너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
너 자신을 하나하나 점도 없이 흠도 없이
하나하나 만들자꾸나
나 예수의 사랑의 은총이
오늘도 너희에게 변함없으니

두려워 말고
이 시대를 깨우고 사망의 저들을
나 예수 품으로 인도하자

난 너의 육이 필요해
난 너의 사랑의 외침이 필요해

나와 함께하면 승리다
나와 함께하면 성공이다
나와 함께하면 영원한 행복이다
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
알겠지?

내 사랑 충만한 섭리사에게
사랑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한다
사랑해